경선 잡음·막장 공천에 혼돈의 호남 표심

민주당, 과열 경선·누더기 공천 '시끌'
민생당, 손학규 비례 2번 공천 '곤혹'

4·15 총선 후보 등록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 민주당의 과열 경선 후유증이 증폭되고 민생당도 막판 비례대표 '막장 공천' 논란에 휩싸이는 등 광주·전남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투표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민주당 압승 구도였던 광주·전남지역 총선 판세의 유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광주 남구의 모 구의원 자택과 민주당 윤영덕 후보(동남 갑) 측 관계자의 자택·개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선 경쟁자였던 최영호 예비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고발 건과 관련해 이뤄졌다.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2명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호 예비후보 측은 남구청장 재직 시절 실무진이 처리한 봉사 활동 표창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천주교 신자인 자신을 신천지와 유착된 것처럼 꾸며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윤 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광산 갑의 민주당 이석형 예비 후보 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여기에 광산 을도 재경선 논란에 이어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이 함께 진행돼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과열 경선에 따른 고소·고발로 총선 이후,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소한 1~2곳은 보궐선거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과열 경선과 누더기 공천에 따라 지역 민심도 점차 냉랭해 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지율에 도취,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민심 저변에서는 점차 당 보다는 인물을 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불과 1~2주 전만 해도 민주당 후보들의 압승이 예상됐으나 경선 잡음이 증폭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역 민심이 점차 냉랭해지고 있다"며 "아직 이러한 민심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어느정도 경쟁 구도가 형성된 지역구에서는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자중지란 속에서 그동안 조용히 이삭 줍기에 나선 민생당 후보들도 막판 비례대표 '막장 공천' 논란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례대표 2번에,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를 3번에 배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민생당에 비판적인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손 전 대표는 그동안 비례대표에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비례대표 신청 접수 마감 후인 25일 저녁 접수,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생당이 발칵 뒤집혔다. 광주·전남 지역 민생당 후보들은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까 말을 아끼고 있다. 민생당 관계자는 "손 전 대표의 노욕이 추하다 못해 구역질이 날 정도"라며 "손 전 대표가 결국 당을 말아먹는 것을 넘어 후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결국 투표율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 정국에서 투표율이 40%대 내외에 그친다면 적극 지지층을 많이 확보한 후보들이 승리를 일궈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생당 및 무소속 후보들은 투표율이 낮다면 '묻지마 민주당 지지'가 감소하면서 역전극을 펼쳐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투표율이 높은 것이 좋지만 낮아도 지지 기반이 탄탄한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우세 구도지만 이 같은 추세가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라며 "선거 막판 민심의 흐름을 봐야 어느정도 판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이해찬 "더불어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비례는 시민당"

현역 원혜영 시민당 합류 가능성
이적시 투표 용지 세번째로
열린민주당 약진엔 '긴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등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만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간 범여권 대립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우리의 우당(友黨)은 시민당'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열린민주당 역시 '진짜 민주당'을 표방하며 여권 지지자 표심을 공략 중이다.

특히 실제 조사 결과 열린민주당이 비례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상당 부분 잠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한껏 긴장하는 모습이다.

전날 열린민주당을 향해 '참칭' 직격탄을 날린 이 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만나 "시민당은 민주당 당원들이 선택한 유일한 선거연합"이라며 "일부 탈당하거나 공천 부적격으로 탈락한 분들이 민주당 이름을 사칭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바람에 여러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다시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시민당을 '형제정당'으로 생각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시민당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자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탈락한 인사들이 열린민주당 간판으로 나서 친정부 메시지를 내놓는 것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열린민주당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내세워 '친조국' 색채를 드러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호명하는 것도 선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열린민주당 쪽은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국 프레임'을 다시 들고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조 전 장관 본인도 원치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리얼미터의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조사(tbs 의뢰·23~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8명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열린민주당은 지지율 11.6%를 기록했고 시민당은 28.9%였다.

지난주 조사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기록한 38.0%의 지지율이 이번주에는 열린민주당과 시민당으로 쪼개지면서,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층 '파이'를 일정 부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26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파견할 현역 의원을 추가하기 위해 전방위 설득 작업을 이어갔다.

심기준·제윤경·정은혜 등 비례대표 의원 3명과 이종걸·신창현·이규희·이훈 의원 등 지역구 의원 4명의 시민당 이적이 확정됐지만, 여기에서 지역구 의원 1명이 추가될 경우 정당투표 용지 순번을 하나 앞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우여곡절 끝 통합당 손 잡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맡아… 1차례 무산 끝 합류

미래통합당이 26일 4·15 총선 선거 대책을 총괄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영입했다.

박형준·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전 대표 영입을 발표했다.

김 전 대표의 직책은 총괄선대위원장이다. 오는 29일부터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직책은 황교안 대표가 맡고 있던 것으로, 황 대표는 총괄 선거 지휘 역할을 사실상 김 전 대표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총선 출마지인 서울 종로 선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의 김 전 대표 영입은 선거 20일 전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승부 카드로 풀이된다.

김 전 대표는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의 입안을 주도했고, 6공화국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대기업의 과다한 부동산 소유를 제한한 토지공개념을 입안한 인물이다.

자신이 선거사령탑을 맡았던 주요 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한 전적도 갖고 있다. 2012년 총선 때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끌던 새누리당에 합류해 승리를 이끌었고, 2016년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대표를 맡아 역시 당의 승리에 기여했다.

황 대표가 직접 나서서 김 전 대표 영입에 공을 들여왔다. /연합뉴스

통합당 "법인세 인하·분양가상한제 폐지"

4대 분야 총선 공약 발표

미래통합당은 26일 경제·공정·안전을 핵심 가치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재설계 한다는 내용을 담은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이날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공식 발간했다. 공약은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등 4대 분야 151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자유시장 내 집 마련' 파트로 따로 구성된 부동산 공약은 3기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담았다.

또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의 대출한도를 높이있다고 약속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로 회복하고,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시세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재정 운영 등을 약속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통해 규제를 개혁하고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 국민부담도 경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정 분야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광주 온 심상정 "선거제 혼란에 책임감"

시의회서 기자회견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4·15 총선을 겨냥한 비례대표용 정당들의 잇단 등장과 관련 "이런 혼란과 염려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던 사람으로서 위성정당 출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총선을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은 미래통합당"이라며 "대한민국 개혁이라는 촛불의 명령을 온몸으로 사보타주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용 정당 불참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이는 민주당과 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의당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은 부당한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에 이어서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제3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제3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 3(당)기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	970,289,039
(1) 당좌자산	970,289,039
보통예금	938,020,216
외상매출금	0
미수금	111,600
선급비용	415,838
이연법인세자산	31,741,385
(2) 재고자산	0
Ⅱ. 비유동자산	10,489,293
(1) 투자자산	489,293
퇴직연금운용자산	489,293
(2) 유형자산	0
(3) 무형자산	0
(4) 기타비유동자산	10,000,000
임차보증금	10,000,000
자산총계	980,778,332
부채	
Ⅰ. 유동부채	471,239,246
외상매입금	84,960,040
미지급금	194,833,467
예수금	26,854,580
부가세예수금	105,609,632
미지급법인세	51,494,507
미지급비용	7,487,020
Ⅱ. 비유동부채	0
퇴직급여충당부채	53,947,843
퇴직연금운용자산	(53,947,843)
부채총계	471,239,246
자본	
Ⅰ. 자본금	200,000
자본금	200,000
Ⅱ. 자본잉여금	3,800,000
주식발행초과금	3,800,000
Ⅲ. 자본조정	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Ⅴ. 이익잉여금	505,539,086
미처분이익잉여금	505,539,086
(당기순이익)	
당기 : 433,432,797 원	
전기 : 70,446,978 원	
자본총계	509,539,086
부채및자본총계	980,778,332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20년 03월 27일

에스티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철

감사의견 :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에스티엠주식회사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재덕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5조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 21 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04월 08일(수요일) 10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122 (춘의동 195) 삼보테크노타워 2521호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 감사 보고
   - 영업 보고
   - 회사 현황
   가.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21기(2019년)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박성주 사외이사)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또는 주주총회 참석장
   나.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또는 주주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주주 인적사항 기재, 인장날인 또는 자필사인, 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5. 기타사항
   당사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국가방침과 부천시 방침에 따라 많은 주주님들을 모실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리며 당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도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제약하고 있는 점에 대해 주주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주식회사 해원바이오테크

대표이사 강혜숙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조계명(810208-XXXXXXX)
- 최후주소 : 전남 고흥군 풍양면 소곡길 113-3
- 등록기준지 : 전남 고흥군 풍양면 안동리 149번지

피상속인 망 조계명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느단109호로 신청하여 2020년 3월 1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3월 27일

- 상속인 : 1. 조양우(510626-XXXXXXX)
  전남 고흥군 풍양면 소곡길 113-17
  2. 이경숙(581017-XXXXXXX)
  전남 고흥군 풍양면 소곡길113-3
- 신고기간 : 2020. 3. 27. ~ 2020. 6. 5.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2. 이경숙의 주소

산행안내

3월2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3월25일(수)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 트레킹,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4월4일(토)

▲**광주금당산악회** 4월4일(토) 고흥 복래산및 쑥섬, 봉선동 롯데슈퍼앞 07: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7:20, 염주체육관 정문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 정문 육교밑 07: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4월12일(일)

▲**광주산가족산악회** 4월 12일(일) 전남 신안 자은도 두봉산 & 해사랑길 트래킹 산행, 동광주홈 07:30 대인광장 07:40 염주체 08:00 ※다음카페 광주산가족산악회 ☎ 010 6886 9106

▲**광주자연보전답사회** 4월 12일(일) 용궐산(전북 순창), 염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주홈플러스 07:4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4월18일(토)

▲**광주금당산악회** 4월18일(토) 여수 환상의섬 연도 소리도 동백꽃 트래킹, 봉선동 롯데슈퍼앞 03: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3:20, 염주체육관 정문 03:30, 한국병원앞 03:40, 문예회관 정문 육교밑 03: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4: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